

콘텐츠@창조산업 동향과 이슈 :

정책 동향

+ 콘텐츠산업 주요 정책동향

| 한국콘텐츠진흥원 산업정책팀 |

문체부-미래부, '콘텐츠 산업 진흥 계획' 발표

미래창조과학부는 4일 '콘텐츠산업 진흥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와 합동 발표했다. 이는 제12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가 중심으로 마련한 '서비스산업 정책 추진방향 및 1단계 대책'의 일환이다. 이날 미래부와 문체부는 콘텐츠산업으로 창조경제를 견인해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실현한다는 정책비전을 제시했다. 2017년까지 시장규모를 120조원으로 키우고, 100억 달러 수출, 69만명 고용(8만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5개 추진전략 하에 12개 과제를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5개 추진 전략은 ▲창의성과 상상력을 지원하는 창조기반 조성 ▲창업 활성화 및 창의인재 양성 ▲글로벌 콘텐츠 육성 및 지역기반 강화 ▲건강한 콘텐츠 생태계 조성 ▲콘텐츠 육성 거버넌스 구축 등이다.

우선 '창의성과 상상력을 지원하는 창조기반 조성'을 위해 모태펀드를 활용한 투융자 재원을 2012년 9200억원에서 2017년까지 1조8200억원으로 확대한다. 문체부는 문화콘텐츠 장르, 인문예술 융합콘텐츠 등의 제작단계별 및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5000억원의 펀드를 조성한다. 미래부는 방송통신콘텐츠, ICT 기술 연계형 디지털콘텐츠 등의 제작 및 창업을 지원하는 4000억원의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과학기술·ICT와 문화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기 위해, 영화(가상배우 표현기술)·뮤지컬(무대장치 기술)·문화예술(첨단전시)·관광(호텔 초과예약 개선)·체육(생활스포츠 모니터링) 등 융합형 선도 기술을 개발한다. '창업 활성화 및 창의인재 양성'을 위해 2017년까지 창작과 창업의 공간으로서 '콘텐츠코리아 랩' 23개소를 설립한

다. 문체부·미래부 간 협력을 통해 분야별로 문화융합형·디지털선도형 랩을 설립할 계획이다. '문화융합형 랩'은 순수예술, 게임·패션·음악 등 문화콘텐츠 장르별 융합 프로그램 개발과 개발을 위한 창작 플랫폼 공간을 제공하고 창업 인큐베이팅을 지원한다. 문체부 주도로 2017년까지 전국에 8개소를 설치한다. '디지털선도형 랩'은 모바일·TV 앱, UHD 연계 콘텐츠, 양방향 콘텐츠 등 기술기반의 유망 디지털콘텐츠 분야에 특화해 창업 인큐베이팅을 지원하고 미래부에서 2017년까지 전국에 15개소를 설치한다. 고용부·중기청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해 유망 신규분야 창직 지원을 활성화하고, 문화벤처 설립을 위한 평가기준 개선, 현장 스태프 경력개발 지원 등 창업 활성화 및 콘텐츠산업 종사자의 고용안정 지원을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글로벌 콘텐츠 육성 및 지역기반 강화'를 위해 해외진출 자금지원을 위한 펀드를 확대하고 수출 영화에 대한 마케팅 투자 전담 펀드 조성도 추진한다. 미국 등 대형시장 진출을 위해 글로벌 창업지원센터 및 해외 IT 지원센터와 연계해 해외 창업을 지원하고, 펀드를 활용한 현지기업 인수·지분투자를 촉진할 방침이다.

신흥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시장 진출을 위해 한·중 '평요우(朋友) 프로젝트(가칭)'를 추진한다. 한·중 문화산업포럼 정례 개최, 콘텐츠 공동제작 지원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건강한 콘텐츠 생태계 조성을 위해 디지털 증거분석 시스템인 디지털포렌식(Digital Forensic) 지원, 저작권 신탁범위 선택제 등을 통해 저작권 보호 체계를 구축한다. 공공저작물 등을 활용하는 등 제2의 창업을 촉진하는 비즈니스 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콘텐츠의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 개발 및 보급을 활성화하고, 디지털콘텐츠 유통실태를 조사한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지원법' 제정을 통해 건강한 엔터테인먼트 산업환경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콘텐츠 육성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서는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를 중심으로 범정부적 육성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문체부·미래부 간 정책협의체를 정례적으로 운영, 관계부처, 업계 대표,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해 규제완화·제도개선 및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C-P-N-D 연계 협의제도 올해 하반기 중 구성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근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등 정책환경 변화를 반영한 법령의 정비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한국문화예술위원회-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문화예술 및 한류 콘텐츠 해외진출 활성화 MOU 체결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7월 19일 오후 2시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유진룡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문화예술 및 한류 콘텐츠 확산과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MOU 체결은



한류 콘텐츠가 아시아를 넘어 유럽·중남미 등 전 세계로 확산됨에 따라 중소 문화콘텐츠기업의 글로벌 시장진출 확대를 위해 문화예술, 콘텐츠, 무역·투자 전문기관 간 노하우 및 정보공유 등 상호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함에 따라 추진됐다. 3개 기관은 이번 MOU 체결에 따라, 문화와 산업간 칸막이를 허물고 △국내외 전시회·마켓 등 개최 및 참가 관련 협력 △한류 콘텐츠 시장 다변화 및 한류 연관 상품 동반 수출 지원 등 문화콘텐츠의 글로벌 진출 확대 및 교류 활성화 분야에서도 힘을 모으게 된다. 이들은 또 문화예술 해외시장 정보 공유 및 공동 홍보 마케팅 △해외사무소 및 무역관과 연계한 한국 문화예술의 해외진출 확대 등 한국 문화예술의 해외진출 확대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해 협력한다. 이들 기관들은 이와 함께 △한류콘텐츠를 통한 현지 진출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CSR) △해외 한류거점별 현지 전문 인력 활용 및 양성사업 등의 분야에서도 협력하게 된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콘텐츠의 근간인 순수 문화예술의 진흥을 담당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콘텐츠 산업 총괄 지원기관인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함께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인 '한류'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 기관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 체제를 마련함으로써 문화콘텐츠 해외수출 활성화를 위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완성보증제도’ 개선안 7월 시행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운영하고 있는 ‘완성보증제도’의 절차가 대폭 간소화돼 신청금액이 5억 원 이하이거나 신청 콘텐츠가 방송용 프로그램일 경우, 완성보증추천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하고 기술보증기금에 직접 접수할 수 있게 됐다. 프로젝트별 보증지원 한도도 제작비의 최대 70%(최대 지원가능 금액 50억 원)까지 확대됐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15일 이 같이 △완성보증 지원과정을 간소화하고 △업체별 완성보증 지원규모를 확대해 지원의 실효성을 높인 ‘완성보증제도’ 개선안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완성보증제도는 콘텐츠 제작 기업들이 미래에 완성될 콘텐츠를 담보로 보증서를 발급받고 제작비 일부를 대출받을 수 있도록 고안된 사업. 영세한 중소 콘텐츠 기업들의 제작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 기술보증기금, 일부 은행들의 협약에 따라 지난 2009년부터 시행해왔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이 제도를 통해 2013년 6월까지 총 97건, 1,053억 6,000만 원 규모의 대출을 지원하는 등 그 동안 중소 콘텐츠 기업들의 자금난 해소에 일조해왔다.

콘텐츠공제조합 설립추진위 발대식 및 토론회 개최

영세 콘텐츠기업들에 대한 금융지원을 제공할 콘텐츠공제조합의 설립추진위원회 발대식과 토론회가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한국콘텐츠진흥원 및 중소기업중앙회 공동주관으로 11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렸다. 콘텐츠공제조합 설립추진위원으로는 콘텐츠 산업 협·단체는 물론 구글코리아,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SBS콘텐츠허브, MBC플러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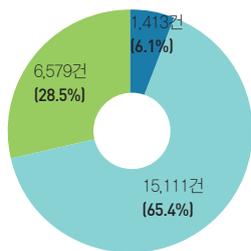
미디어, KBS미디어, KT미디어허브 등(이상 가나다 순) 콘텐츠 유관 기관의 대표들이 대거 참여했다. 공공 영역에서도 중소기업중앙회 콘텐츠산업특별위원회 김종민 위원장을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 원용기 문화콘텐츠산업실장, 한국콘텐츠진흥원 홍상표 원장, 중소기업중앙회 송재희 부회장, 동반성장위원회 김중국 사무총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콘텐츠공제조합은 콘텐츠 산업계 안팎에서 출자하거나 출연한 기금을 재원으로 조합원인 콘텐츠 중소기업들에게 금융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는 공공 금융기관이다. 설립

이 되면, 창의적 아이디어나 콘텐츠가 있어도 영세성 때문에 기존 금융권 대출·보증 심사기준에 미달해 콘텐츠 개발 및 유통에 필요한 자금 확보가 어려운 콘텐츠 중소기업에게 단비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콘텐츠공제조합 설립추진위원 36명과 업계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창조경제 생태계 구현을 위한 콘텐츠공제조합의 필요성과 역할’에 대한 발제에 이어 ‘콘텐츠 업계에서 대기업·중소기업·은행에 바라는 점’,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 등에 관한 의견이 개진됐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콘텐츠공제조합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대기업들의 출자와 금융권의 출연을 독려하며, 콘텐츠공제조합의 10월 설립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콘텐츠종합지원센터’ 개소 1주년 맞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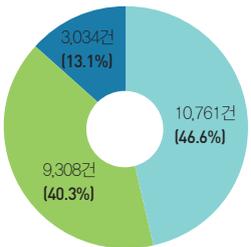
콘텐츠비즈니스 통합지원 허브를 목표로 개소한 콘텐츠종합지원센터가 지난 7월 16일로 1주년을 맞았다. 콘텐츠종합지원센터는 콘텐츠산업 정보제공, 상담 및 컨설팅, 종합민원대응 등 콘텐츠 기획·제작·국내외 유통 등 콘텐츠 생태계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콘텐츠 기업의 애로사항을 원스톱 맞춤형으로 해결해 주고 있다.

지난 1년간 콘텐츠종합지원센터 대표전화인 ‘1566-1114’, 센터 방문, 그리고 포털사이트 문의하기 메뉴를 통한 콘텐츠종합지원센터 이용횟수는 개소 전에 비해 8.4배 증가한 23,103건에 달하였다. 특히 법률·지재권·조세·마케팅·금융·특허·창업 등 각 분야별 전문 자문단을 통한 상담 및 컨설팅을 통해 적지 않은 해외진출 성공사례까지 나오면서 콘텐츠 업계의 해결사 노릇을 톡톡히 해주고 있다는 평이다.



■ 전화문의 ■ 방문이용 ■ 온라인문의

문의 채널별



■ 정보제공 ■ 대면·민원 ■ 상담컨설팅

문의 유형별

콘텐츠 업계 이용량 월평균 2,000여건, 게임·만화·애니·캐릭터에 대한 문의 가장 많아
콘텐츠종합지원센터 전체 이용량 23,000여 건 중, 전화문의가 15,111건으로 65.4%, 방문이용이 6,579건으로 28.5%, 온라인문의가 1,413건으로 6.1%를 차지했다. 센터 개소와 함께 각기 분산 운영되었던 전화번호를 ‘1566-1114’로 통합 운영하면서, 전화문의가 단일화 된 소통 창구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낸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문의 유형별로는 정보제공이 10,761건으로 46.6%, 민원응대가 9,308건으로 40.3%, 상담·컨설팅이 3,034건으로 13.1%를 차지했다.

장르별로 살펴보면 수출 효자 콘텐츠로 자리 잡은 게임이 39%로 가장 많았고, 만화·애니메이션·캐릭터, 방송, 스마트콘텐츠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해외진출 성공사례 속속, 지역 콘텐츠기업 지원까지 나서

콘텐츠종합지원센터의 무료 상담·컨설팅 서비스를 이용하여 해외진출에 성공한 사례도 눈에 띈다. 애니메이션 제작업체 ‘빅픽션’은 계약이전 단계인 달메모부터 전문 자문단과의 상담을 통해 인도 에텐사와 30억원 규모의 공동제작 MOU를 맺고 세부계약을 추진중이며, 게임개발사인 ‘블루베리 엔터테인먼트’는 라이선스 영문 계약서 검토, 해외 관세 등에 대한 수출 상담을 진행한 결과, <토이디펜스>, <SD삼국디펜스> 등 10여개 게임을 대만에 수출하는데 성공했다. ‘니트로젠’ 역시 액션게임 <L.A.W>의 러시아 진출을 위해 현지 조세에 대한 상담을 받고 30만 달러 규모의 수출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

지역 콘텐츠기업을 위한 행보도 눈에 띈다. 지난 6월 부산에서 개최된 ‘글로벌 수출실무 워크숍’과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는 부산소재 콘텐츠 기업들을 대상으로 법률, 지적권, 온라인 마케팅 등 전문 분야에 대한 강연과 해외진출을 위한 1:1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해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콘텐츠종합지원센터는 올 9월 콘텐츠 분야 국제 전시회인 광주 ACE Fair와 연계해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개최, 광주·전라지역 콘텐츠 기업들의 해외진출에도 도움을 줄 계획이다.

‘콘텐츠 유관기관 정보공유 협약식’ 개최, 콘텐츠산업 종합지원체계 고도화 목표



콘텐츠 유관기관 정보공유 협약식

콘텐츠종합지원센터는 지난 7월 12일 개소 1주년을 기념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원용기 실장, 한국콘텐츠진흥원 홍상표 원장 등이 자리한 가운데 ‘콘텐츠 유관기관 정보공유 협약식’을 열고 한국무역협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게임개발자협회 및 지역 문화산업진흥원 등 40여개 기관과 함께 콘텐츠산업 정보 공유 및 비즈니스자문단 공동 구성 추진 등에 함께 뜻을 모으기로 했다.

이날 자리한 60여명의 기관장 및 실무 담당자들은 올 11월부터 운영되는 ‘콘텐츠종합정보지원포털(www.kocca.kr)’에서 그동안 개

별 사이트에서 분산 제공되던 콘텐츠 분야 지원사업, 행사, 정책 및 동향 등을 한 곳에서 제공하여 정보습득 채널을 단일화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식은 콘텐츠 유관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뿐만 아니라, 콘텐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콘텐츠산업 종합지원체계를 고도화 하는데도 큰 의의를 가질 전망이다.

